

고물가·고금리...광주 청년들 빚더미에 '허덕'

청년드림은행 상담 건수 2020년 359건서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 채무액 3008만원→4779만원...회생·파산 채무 조정도 크게 늘어

광주에서 판매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30)씨는 지난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코로나19 여파로 인력 수요가 줄면서 실적했는데, 이직 과정에서 생활비 등을 신용카드로 충당하다 보니 고물가와 고금리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채가 26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 됐다. 가족·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빚을 상환하려고 했으나 빚은 오히려 늘어나 월세 81만원과 주변에서 빌린 돈 560만원조차 갚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A씨는 결국 지난해 광주청년드림은행을 찾아 상담을 받고,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광주청년드림은행은 사회적협동조합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

영 중인 청년 부채 해소 지원 기관으로 '청년금융상담', '채무조정·연체해소 지원' 등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30)씨 또한 영업을 하면 할수록 매출은 줄고 빚은 늘어나 광주청년드림은행의 도움을 받았다.

B씨는 적은 순수의 안에서 가구, 신메뉴 재료 등을 할부로 구입했는데, 빚이 갚을 수 없어 불어나 아무리 매출이 올라도 빚는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B씨는 "광주청년드림은행 상담을 통해 정부 저금리 대출을 받고 조인을 받아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 겨우 한숨을 돌렸다"고 말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개인회생신청 및 파산 신청을 하는 광주 청년들이 늘고 있다.

16일 광주청년드림은행에 따르면 청년 부채와 관련된 상담을 한 건수는 2020년 359건, 2021년 454건, 2022년 424건, 2023년 447건으로 증가했다.

상담자의 평균 부채도 2020년 3008만원, 2021년 2912만원, 2022년 4568만원, 2023년 4779만원으로 늘고 있다.

상당자의 평균 부채도 2020년 3008만원, 2021년 2912만원, 2022년 4568만원, 2023년 4779만원으로 늘고 있다.

광주청년드림은행은 큰 부채를 안고 있어 신용 회복위원의 채무조정(워크아웃) 및 법원의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을 받는 사례도 급증세라고 분석했다. 채무조정은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를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

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에는 상담 이후 워크아웃 118명, 개인회생 37명, 개인파산 면책 4명 등 총 159명이 채무조정 제도를 거쳤으며, 이 중 88명이 실제로 채무조정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워크아웃 151명, 개인회생 29명, 개인파산·면책 8명 등 188명이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133명이 채무조정 대상자가 됐다.

주세연 드림은행 센터장은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대출, 소액생계비 대출 등을 받아 위기를 넘겼다가, 결국 대출 상환일이 도래해 연체 늪에 빠지게 된 이들이 늘고 있다"며 "단순히 대출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대출에 앞서 1대1 상담을 통해 상환 구조를 점검하고 청년들에게 대출 외의 선택지를 안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제도, 채무조정, 소비조정 등 안내를 통해 근본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건 브로커' 수사 속속 드러나는 전남경찰 인사청탁 비리

'사건 브로커'가 개입한 전남경찰 인사청탁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16일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 심리로 제3차 뇌물취득, 제3차 뇌물교부 혐의를 받는 퇴직 경찰 A(66)경감과 B(65)경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A씨가 사건 브로커인 성모(63)씨로부터 지난 2021년 1월 5000만원을 받아 당시 전남경찰청장 C차안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성씨가 돈을 건넨 명목은 '현직 경찰관 2명을 각 경정과 경감으로 승진시켜달라'는 내용이었다.

C차안감은 전남경찰청장 재임(2020년 8월~2021년 12월) 당시 인사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B씨도 현직 경찰을 승진 시켜달라고 2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해 제3차 뇌물교부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C차안감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A씨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A씨를 통하지 않으면 인사청탁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돌았던 점을 들어 일명 '문고리' 역할을 했다는 추정과 사건브로커의 단순 전달책이었다는 설이 돌고 있다.

또 C차안감이 인사청탁 관련 통로를 A씨로 단일화해 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은 법정에서 전남경찰청 인사 비리 관련 최근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 변호인이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성적 만족 목적 여성 화장실 침입 40대 마트 배달원 항소심서 감형

성적만족을 얻기 위해 여성 화장실 등지에 침입한 40대 마트 배달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주거침입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5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의 공용 여성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 용변 소리를 엿듣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밤 10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원림촌 빌라 1층에 거주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담장을 넘어 들어가 창문을 엿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에만 같은 방법으로 여성 3명의 집을 들어다녔다.

A씨는 원림촌을 맴돌다 경찰관으로부터 '배회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7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지난 2014년 빌라 1층 창문을 통해 여성이 타인과 대화하는 목소리를 엿들으며 성적 만족감을 느낀 뒤 창문이 있는 빌라를 보면 외벽에 가까이 붙어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했다.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주위에 침입했으나 집안에 들어가거나 창문을 여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안전점검 1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203정거장에서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들이 지하철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본부는 18일까지 7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 김녹영 전 의원 유족 5·18 정신적 손배 승소

제12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고(故) 김녹영(1924~1985)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정영호)은 김 전 의원의 자녀 두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

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명의 유족에게 각 4200만~54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의원은 제10대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1980년 강대중 내란음모 사건 주모자로 체포돼 171일간 불법 구금돼 고문받았다.

김 전 의원의 사망 후 유족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았지만, 최근 한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결정을 함에 따라 가족들이 추가 소송에 나서 일부 승소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8·10·12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주화 운동에만 헌신한 탓에 집 한 채 없이 전세로 살며 민중을 격정한 국민의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흥 해안도로 화물차 추락 60대 운전자 숨진채 발견

고흥군 갯벌에 추락한 화물차에서 운전자가 숨진채 발견됐다.

16일 고흥소방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의 해안도로 인근에서 "갯벌에 1t 화물차가 추락해 버려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차량은 조수석 쪽으로 전도돼 갯벌에 잠겨 있었으며, 차량 내부에서는 A(여·6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마을 인근 해안도로로 가드레일이나 안전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CCTV 분석을 통해 전날 밤 10시께 A씨가 고흥군 과역면 친척집에서 나와 귀가하기 위해 운전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A씨가 귀가 도중 도로를 벗어나 5m 아래 갯벌로 떨어져 사고 충격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온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온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